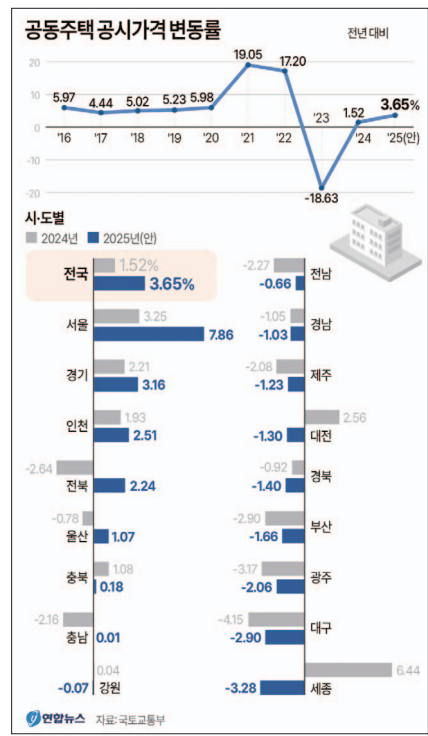


# 공동주택 공시가 광주 2.06% ↓...3년째 내리막

# ECONOMY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 세종·대구 이어 하락폭 커...전남도 0.66% ↓ 평균가격 1억6444만6000원·1억428만5000원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광주·전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각 2.06%, 0.66% 떨어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2년 12.38%, 5.29% 상승 이후 3년 연속(2023년 광주 -8.75%·전남 -10.03%, 2024년 -3.17%·전남 -2.27%)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3.28%), 대구(-2.90%)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광주의 공동주택 조사 대상은 아파트 1296단지, 5463동, 46만1717호였고, 연립주택은 362단지, 674동, 1만1964호, 다세대주택은 782단지, 899동, 9032호였다.

전남의 경우 아파트 1467단지, 5394동, 40만2997호, 연립주택 780단지, 1209동, 1만8487호, 다세대주택 1252단지, 1457동, 1만1461호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에서는 광주는 1억~3억원 이하가 25만5093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

억원 이하(17만2700호), 3억~6억원 이하(5만1607호), 6억~9억원 이하(2400호), 9억~12억원 이하(832호), 12억~15억원 이하(68호), 15억~30억원 이하(13호) 순이다.

전남은 1억원 이하가 25만3325호로 최다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억~3억원 이하 17만2511호, 3억~6억원 이하 7079호, 6억~9억원 이하(19호), 9억~12억원 이하(11호)이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광주는 2021년 1억5888만6000원, 2022년 1억8016만7000원, 2023년 1억6808만6000원, 2024년 1억6468만4000원, 2025년 1억6444만6000원이다.

전남은 2021년 1억241만8000원, 2022년 1억1113만5000원, 2023년 1억137만3000원, 2024년 1억145만7000원, 2025년 1억428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다만, 시·도별 편차는 지난해보다 더 뚜렷해졌다.

17개 시·도 중 7곳의 공시가격은 올랐고,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또 경기 3.16%, 인천 2.51% 상승하는 등 수도권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기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한전KDN, '전력IT 개론' 특강 2학기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편

한전KDN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력IT 개론' 특강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학기 과정에서 전공선택 2학기 과목으로 개편되며, 최신 전력ICT 동향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로 개편해 학생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중심의 학습을 통해 차세대 전력산업에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DN은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ESG경영 실천과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전력ICT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강의를 개설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력시스템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스마트그리드 기술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올해는 오는 6월까지 12주 기간으로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경력 관리와 진로 안내를 시작으로 송·배전, 전력판매, 생성형 AI, 스마트그리드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전KDN 사내 전문가와 현장 실무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이승홍 기자 photo25@

### 국내 최초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개발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서 시연회...한수원과 협력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PAFC(인산형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서 진행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에서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회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양시, 두산퓨얼셀, 에어레인, 한국종합기술 등 관련 지자체와 기관·기업들이 참여했다.

탄소포집기술개발은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시작됐으며

지난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 추진,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으며 현재 PAFC연료전지 출력 100%까지 운전하면서 이산화탄소 분리막 포집설비로 포집 실증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광양제철소, '금호태인보도교' 착공

#### 30억3000만원 투입 내년 3월 완공 목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3일 광양시와 함께 금호동과 태인동을 연결하는 '금호태인보도교'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권 전남도의회 의장, 최태원 광양시의회 의장, 고재운 광양제철소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태인보도교는 길이 64m, 높이 4.45m, 폭 5m의 강관거더교로 지역민들의 보도 및 자전거를 활용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사업비는 30억3000여만원으로 이중 22억5000만원은 포스코가, 7억 8000만원은 광양시가 각각 부담하며 오는 2026년 3월 완공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3일 광양시와 함께 금호동과 태인동을 연결하는 '금호태인보도교' 착공식을 가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 선도 '맞손'

#### 한국광기술원-DH오트웨어 MOU...핵심 부품 개발 등

한국광기술원과 DH오트웨어가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광기술원은 1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DH오트웨어와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H오트웨어의 광주 이전

에 맞춰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목표로 양 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MOU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이번 MOU는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한 자율주행 관련 첨단 기술과 DH오트웨어의 전장 부품 제조 기술을 결합,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지역맛집 탐방

여름철 기력회복 으뜸

**'국내 1호 무항생제 장어' 맛보실래요**

- ✓ 방사능 수치 등 매년 80여가지 검사 통과 인증
- ✓ 고급 커피나무 참숯에 구워 탱글한 식감 '일품'
- ✓ 신선한 국내산 재료 고집...단체 모임 장소 각광

## 광주 장어명가 청산 복구집

광주 복구 하서로 668 장어명가 청산 복구집  
062-571-3692 11:00-21:30